

AI시대 여성의 공감적 감성 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

김난예(침례신학대학교/부교수)

nanyekim@hanmail.net

한글 초록

본 연구는 AI 시대의 특징과 공감적 감성화를 살펴보고,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고 변화를 불러온 여성의 공감적 감성의 사례를 통해, AI시대 여성들의 공감적 감성능력 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AI 시대에서는 공감이 강조되고 공감적 감성이 이슈화 되고 있다. 공감은 갈등에서 벗어나 고난과 역경 및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며, 공감적 감성은 AI시대의 새로운 힘이며 앞으로 더욱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AI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공감과 공감적 감성이다. 여성의 공감적 감성은 인간 존엄성과 평등, 도덕성, 섬김과 헌신 및 배려의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공감적 감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의 고난을 극복하고 변화를 이끌어낸 여성들의 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별로서의 여성이 아닌 역사적 한 인간으로서 감각과 사고를 지닌 여성성으로서 AI 시대 여성의 공감적 감성 능력의 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들은 여성의 신학적 정체성 재정립,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 시대를 읽는 통찰력 함양이 될 것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 주제어 〉

AI시대, 여성, 공감적 감성 함양, 신학적 정체성, 시대를 읽는 통찰력

I. 들어가는 말

어느 누구도 내일은커녕 한 시간 뒤의 일도 알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순간을 살 뿐이다. 그러나 내일의 미래는 현재가 지속되면서도 변화되는 것이므로 미래를 기다려서는 안 되며, 스스로 창조해가야 한다. 헤르만 헤세(2014)가 “나는 자연인이 던진 주사위였다. 불확실성을 향해, 어쩌면 새로움을 향해, 무를 향해 던진 주사위, 태고의 깊이에서 던진 이 주사위를 작용하게 하고 그 의지를 내안에서 느끼고 완전히 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나의 소명이었다”(175)고 말한 것처럼 미래 속에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은 불확실한 미래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한 소명으로 열어나가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거대한 3번의 파도를 넘어 4번째 파도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몸을 실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딥러닝, 빅데이터, 3D 프린터, 나노봇 등 정보기술을 표현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발전 중이어서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용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다. 생명공학에서 인공지능까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은 지난 세기와는 달리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감성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여성의 지도력이 주목받고 있다. 피터 드러커가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말했고,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츠와 어버든(1997)은 21세기는 3F인 여성(Female), 감성(Feeling), 상상력(Fiction)이 미래사회의 중요 가치로 등장할 것이고 사회 각 부분에서 이에 부응하는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우리나라 2016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자 74.2%, 여자 52.6%로 나타났고, 고학력화 및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52.9%에서 2028년에는 53.7%로 높아지고 남성은 73.7%에서 73.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통계청, 2019).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년 증가

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여성이 핵심 경제활동 인구 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여성은 소비 주체가 아니라 유행을 선도하는 트렌드 창조자로서 여성적 감성을 담아내는 제품개발과 전략으로 승부하며(서홍석, 2005, 2) 여러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는 감성(feeling)과 상상력(fiction)을 여성(female)이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전망은 여성의 감성 역량과 지도력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AI 시대의 특징과 공감적 감성화를 살펴보고 현상적이고 도구적 공감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공감적 감성으로 시대적 역경을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한 사례를 통해, AI시대 여성들의 공감적 감성능력 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AI 시대

1. AI 시대의 특성

1) 생각대로 마음대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기술 및 정보로 옷 입은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공존시대를 열어 놓았다.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변화되는 기술적 혁명의 시대라 하였다(Schwab, 2017, 25, 109). 첨단 과학기술이 만드는 2025년에 발생할 티핑포인트 중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고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쓰고, 3D 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생산되고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이식되고,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되는 등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21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Schwab, 2017, 52). 3D 프린터에 IT기술을 융합하여 나노봇(Nanobot)을 제작하고 이를 인간 뇌에 이식하고 인간 뇌는 클라우드에 연결되고 확장되면서 이식된 나노봇은 보조 기구 없이도 가상현실(VR) 이미지를 인간 두뇌에 직접 투사하는 등 영화 '매트릭스'와 같은 가상공간에서 살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과 IT기술 융합으로 인간세포를 교체하며 500살을 살고, 근본적인 생명 연장(radical life extension)이 가능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시대가 되며, AI로 죽은 자의 기억을 DNA샘플링 기술과 결합해 죽은 사람의 가상 버전을 가능하게 하는 등 가상현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또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고 대화하고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1초 만에 홀로그램으로 지구 반대편에 나타나고, 멸종 생물을 되살리고, 쓰레기와 오염이 없는 핵융합 에너지를 사용하며, 초전도 에너지로 공중에 떠서 질주하고 우주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 관광을 하게 될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마법이 아니라 과학으로 가능하게 되며(김성화·권수진, 2019) 첨단 과학 세상이 갑자기 나타난 신비한 기술이 아닌, 오래 전부터 과학자들이 발견해온 자연의 법칙으로부터 탄생했던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는 기술적 도전으로서 기술을 통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며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2) 온 세상이 내 손안에

빅데이터 없는 인공지능은 있을 수 없다(최은수, 2018, 40).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와 가장 큰 혁신적 변화 중 하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폰'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스마트 컨버전스를 통해 가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갈 때나 잘 때도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에 의존해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스마트폰이 또 하나의 인간 장기가 되어, 스마트폰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포노 사

피엔스(Phono Sapiens)라고 한다. 포노 사피엔스는 외부 장기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혜를 얻고 하루에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하루에 30억명 인구에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으며(최재봉, 2019, 81), 정보와 지식을 빠르게 숙독하고 또 새롭게 생긴 생각과 지식을 순식간에 전 세계 인류에게 공짜로 전파한다.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본격화함으로써 인간을 1인 미디어 세계로 이끌었고(최은수, 2018, 21) 온 세상이 손안에 들어오게 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빅데이터에 남겨지고 모든 정보의 빅데이터를 옷 입은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폰은 또 다시 업데이트되어 지구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내 손안으로 들여온다.

3) 외톨이

AI를 탑재한 기계들은 내 모든 삶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의 취향과 필요한 시기와 장소까지 알아서 모든 요구를 논스톱으로 해결해 주며, 나보다 내 감정을 더 잘 이해해서 나의 모든 결정적인 의사 결정을 해 줄 것이다(Harari, 2018, 86). 이렇게 권위가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동하면 AI는 우리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증오, 갈망을 파악하고 그것을 내적 지렛대로 삼아 해를 끼칠 수도 있다. 예컨대 최근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해커들은 개인 유권자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들의 기존 선입견을 악용해 그들을 조정할 수 있다(Harari, 2018, 120). 또 신기술이 창출하는 부의 혜택은 갈수록 더 적은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돌아가 실업률은 더 높아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이며(Schwab, 2017, 201) 대다수 사람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하고(Harari, 2018, 122) 불평등한 사회는 더욱 폭력적인 성향을 띠고 수감자의 수가 많아지며, 정신질환과 비만이 높아질 것이다(Schwab, 2017, 150). 이런 현상은 고도의 기술사회가 될수록 인간은

더 외로워지고 외톨이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상공간 안에서 가상현실을 살아갈 때 누구도 옆에 없이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면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감적 감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위에서 AI시대의 특징을 살펴본 대로 기계가 많은 인간들을 대체하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기계와 데이터에 의해 통제되면, 기계를 통제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최상위 엘리트와 기계에 대체되고 쓸모없어지는 인간 계층이 구분될 것이다. 또 가상현실을 덧입힌 증강현실과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의 핵심적 혁신 기술 앞에서 프라이버시와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 데이터 공유와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할 것이다(최은수, 2018, 22). 여기에 조만간 답하지 않으면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며 난제가 될 것이고 사회정치적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다(Harari, 2018). 따라서 인공지능 AI 시대의 이런 상황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외톨이가 아닌, 더불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배려와 돌봄의 공감적 감성을 옷 입어야 한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고도의 기술사회가 되었다 할지라도 한 인격체로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부대끼며 고통과 행복,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인공지능은 인간의 희로애락, 농담 표현 등 인간의 감성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최윤식, 2016, 376) 사회생활을 하는 로봇(Robot with Social Lives)이 인간 삶의 조력자로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키며,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SNS를 통해 공유할 것이지만 인간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공감적 감성을 가져야 한다.

2. 공감적 감성화

AI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경향이 공감적 감성화이다. 감성교육, 감성경영, 감성마케팅, 감성공학 등 감성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감성 트렌드가

새로운 시대 조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감성이 중요하게 된 것은 전통적인 산업사회는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합리성이 중요시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사회는 감성이나 감각, 경험 등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김대식, 2007, 171).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 12:14-15),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고전 12:24-26),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라”(약 1:27)는 성서 말씀이 바로 공감적 감성이다.

1) 공감

지금 이 시대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감을 원한다. 나와 비슷한 것,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것에 직관적으로 공감하여 그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감이란 자신의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고 그 상황을 상상해보는 것이다(김난예, 2016, 349).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의사소통은 물론 배려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본능적으로 배려하게 된다(Rifkin, 429). 온 세상을 손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 블로그와 인터넷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감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들의 공감은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재영, 2010, 31). 『공감의 시대』 작가 리프킨(2010, 6)은 인간은 물질을 소유할 때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AI시대에서는 간단한 ‘네트워크 접속’으로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공감을 통해 이슈화되고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전 지구적 문제란 인간소외, 인권문제, 인종차별, 핵문제, 지구 온난화, 환

경과 개발, 전쟁과 평화 등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말한다. 특히 점점 더 깊어지는 분배문제의 불균형적 상황을 포함한 전쟁 무기들의 위협, 창조질서의 파괴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공감해야 한다. 공감의 힘은 결국 갈등에서 벗어나 함께 힘을 합하여 고난이나 역경 및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감적 감성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은 새로운 AI시대의 힘이며 앞으로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지구적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Schumacher, 1987, 150-170).

2) 감성

사람은 감각으로 들어온 감각정보를 종합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치기준에 의해 외적 세계와 내적 세계를 종합하여 복잡한 정보를 만든다. 이 중 직접적이고 비교적 단순한 것을 '감정'이라하고 다의적이고 복잡한 평가적 판단을 야기하는 것을 '감성'이라고 한다. 감성(感性, emotion)이란 인간이 감각 지각(感官 知覺)을 통해 어떤 대상을 느끼고 이해하며 반응하는 성질을 말한다(이대회, 2005, 4). 즉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서 발생하는 감각 또는 지각과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인 기쁨 즐거움 혐오 분노 등의 기분이나 감정의 통합체로서 사람마다 성장 환경과 문화적 사회적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복잡하고 주관적인 감정이다. 물론 감성의 사전적 정의는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느낌이 일어나는 감수성(感受性), 대상으로부터 촉발되어 표상(表象)을 얻게 되는 수동적인 능력, 이성과 대립되는 말로서 대상으로부터 감각되고 지각되어 표상을 형성하게 되는 인간의 인식능력, 감각적 자극이나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경험을 수반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마음의 능력, 의지나 지성과는 구별되

는 감각적 충동의 욕구, 감정, 정서를 포함하는 마음의 능력 등 그 의미가 다양하다. 심리학적으로는 지식과 감정과 기분이 혼연일체가 된 심적 상태로서 외부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감각이나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적 체험으로 쾌적함, 공포감, 불쾌감, 불편함 등의 복합적인 감정 감성은 감각의 모자이크의 구성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면서 심리적 이미지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최상복, 2004).

이러한 감성은 각 사람마다 고유한 감성이 있고 민족적, 지역적으로 공통된 감성과 생활문화권과 관련된 문화적 감성도 있으며,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개발된 제품에서 느끼는 기능적 감성과 디자인이 강조된 하이터치(high-touch)제품의 감각적인 감성 등 감성의 종류도 다양하다. 상품의 부가가치를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의 감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이컬처(high-culture)제품과 문화적 감성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공감적 감성은 편리한 기능 뿐 아니라 감각적인 즐거움과 인간의 감성을 상호 소통시키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한다(김정근 외, 2008, 17). AI 시대에서는 인간의 정서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AI 인공지능 문화를 기반으로 한 공감적 감성이 이슈화 되고 있으며 모든 AI제품의 디자인은 여성의 공감적 감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3) 공감적 감성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온 일련의 과정이다. 1차 산업혁명은 생존의 욕구인 의식주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을 성장시켰고 의식주 욕구를 충족한 인류는 2차 산업혁명의 전기발견으로 인류의 사회적 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켰다면(최은수, 2018, 57), 3차 산업혁명의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혁명은 어디에 있던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소속감의 욕구를 넘어 자아 존중감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4차 산업혁명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융합되어 인간과 기계(Human to Machine:

H2M), 기계와 기계(Machine to Machine, M2M)의 융복합으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며 삶의 형태를 바꿔 자아실현의 욕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내면적 자아실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성을 소중히 생각하고, 타인과 차별되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개성과 감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빠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거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공감하는 감성을 중요시한다.

공감의 감성적 경향은 젊은 세대들의 특징이며 동시성과 비동시성을 함께 지니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수평적이다(김난예, 2013, 106-107). 공감적 감성을 지닌 사람들은 단순히 새로운 스타일이나 기능만을 찾고 오히려 자신의 감각과 생활방식을 새로이 찾아 서로 공감하고 감성을 만족케 하는 것을 추구한다(이지선, 2008, 1).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 모바일 APP 등을 기본으로 하는 AI는 현대인들의 삶과 생활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만족감을 주는 새로운 감성을 경험하도록 디자인되고 있다. 다양하고 새로운 콘셉트로 AI는 인간 생활에 편리하고 더 만족스럽게 사람들의 감성적인 면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나 어떤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AI로 현대인의 삶이 편리해지는 만큼 생활 속에서 겪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응과 비인간적인 사회관계의 심화 속에서 감성은 메마르고 그에 따른 긴장감도 야기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척박하고 차가운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감성을 갈망하는 요구가 많아지면서 AI는 감성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사람이 느끼는 작은 감성의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는(이연란, 2014, 1) 감성화를 옷 입고 사회 문화 전반에서 자리하게 된다. AI가 공감적 감성을 옷 입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AI의 모든 디자인들은 가볍고 얇고 곡선과 부드러운 것으로 바뀌었다. 남성들조차도 패션, 미용, 인테리

어, 요리 등 여성의 감성적 라이프스타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메트로 섹슈얼리즘(Metro-Sexualism)과 여성들의 옷차림을 닮아가는 ‘남성의 여성화(Feminization)’ 트렌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공감적 감성은 분명히 일시적 감정이 아닌 지성이 전제된다. 감성적 지성(emotional intelligence)은 이성이 내재된 감성으로 ‘감성이 에너지, 정보, 대인관계 그리고 영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를 재치 있고 설득력 있게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통찰력이다(Fineman, 2000, 103). 또 지성적이고 공감적인 감성은 감성과 이성의 존재를 잘 인지하고 어느 한쪽에 지배 받거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할 줄 알며, 나아가 자신의 감성들을 적절하게 다스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성들도 바르게 파악 할 줄 아는 것이다(Evans, 2001, 59-60). 감성은 지성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감성과 이성은 서로 보완적 관계이지만 감성이 사고를 촉진시키는 관점으로 본다(손호중, 2007, 192). 여기서 공감적 감성은 지성이 전제된 것을 공감적 감성(empathetic sensibility)이라 한다.

3. 여성과 공감적 감성

존 나이스비츠는 「여성 메가트렌드」(1993)에서 남녀 양쪽의 균형이 여성 쪽으로 기울었고 온 세계에 걸쳐 수백만 명의 여성이 경제 정치적 힘을 획득하고 있으며 좀 더 인간적인 면을 바탕에 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의 미래학자 페이스 팜콘 역시 「클릭 이브 속으로」(2001)에서 21세기는 이브올루션(EVEvolution, 이브(Eve)와 진화(Evolution)의 합성어)으로 여성적인 사고방식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쳐 여성이 점차 힘을 얻어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여성적 성향이 강화된 여성적 감성 트렌드로 모든 것이 변화한다고 말한 바 있다(신정환, 2011, 22-23). 미래 사회학자들 역시 21세기는 ‘여성성’의 시대가 될 것

이라고 예측한다. AI 사회는 물리적인 힘보다는 소프트하고 섬세한 마인드가 필요한 시대이며, 힘의 논리보다 융통성과 조화로운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 이는 문화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미에 대한 감각이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이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과 여성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과 특유의 감각이 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여성 트렌드제로의 소리 없는 혁명은 여성적 감성화를 더해가며 여성의 기호와 감성에 어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AI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성별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감각과 사고로서의 '여성성'임을 기억해야 한다(서홍석, 2005, 2).

1) 신체-물리적 여성적 감성특성

일반적으로 여성은 색을 인식하는 X염색체가 2개여서 색상 감지가 남성보다 우월하며 섬세한 고음의 소리를 잘 분간하고 날씨와 기후, 환경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성 에스트로겐호르몬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며, 성별 우반구좌반구의 발달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남성은 시공간능력과 수리능력에서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적성을 보이며 이론적, 경제적, 정치적 주제에 대한 흥미가 강한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언어능력이 탁월하며 예술적, 사회적, 종교적 흥미가 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손여림, 2012, 16).

2) 사회 문화적 여성의 감성특성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확대, 여성교육 기회확장, 남녀평등의 가치관 등 급속한 사회변화는 '여성다움'의 전통적 생각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통념적인 여성다움은 남성다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남성다움(masculinity)은 유능이나 합리적, 이성적, 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여성다움(femininity)은 부드러움, 유순함, 감정적, 소극적인 특성으로 묘사된다(김원홍 외, 1999).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며 부드럽고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여 배려와 친교, 예술적 경험을 향유하려는 경향을 보이
고(김기환 외, 1995), 친화력이 높은 사회성을 지니고 친교를 통해 능숙
한 대인관계가 가능하며 관계를 중요시하는 특유의 친밀감으로 타인을 배
려하며 더 감각적이다(손여림, 2012, 18). 여성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에
대한 이해가 남성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감성 활용능력이 높은 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팀은 영국에 거주하는 67만1천606명을 대상
으로 공감능력을 측정한 결과 여성의 43%가 남성의 24.6%보다 두뇌가
더 공감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 2배가량 더 분석
적인 체계 지향적(system-oriented)이라고 밝혔다([http://www.injuryti
me.kr](http://www.injurytime.kr)). 따라서 여성의 공감적 감성은 사회적 인식과 관계 등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갈등과 내적 불안요인을 해
소하며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이덕근, 2008). 이처럼 여성
은 성별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감각과 사고로서의 여성의 공감적 감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Ⅲ. AI 시대 여성의 공감적 감성 이슈

AI 시대에 우리 후손들은 더 적게 일하고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일과
보수는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가 발생할 수도 있다(Schwab 외 26인, 2017, 148). 유발 하라리가 말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은 현재 우리의 문제로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과 선택은 무엇
인가,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더 나은 오늘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제안의 답이다. 필자는 여
기서 21가지 제안을 종합하여 AI 시대 가장 중요한 공감적 감성 이슈로
3가지를 살피고자 하며 이를 잘 보여주는 여성들을 사례로 예시하고자

한다.

1. 인간 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공감적 감성

인간이 기계처럼 되고 기계가 인간처럼 되는 AI시대에 컴퓨터와 로봇은 인간의 존재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바꾸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성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을 말하고 있으나 ‘모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보편적 진리가 당연해진 데는 기나긴 투쟁의 역사가 있었다. 150년 미국은 오늘날보다 인종차별이 심했고 백인들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포획하여 노예로 삼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거대한 목화 농장을 경영하는 남부지역과, 값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던 북부 공장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이유 없이 끌려온 흑인들은 백인의 총칼 아래 두려움에 떨면서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런 불평등의 삶에서 스스로 자유를 찾았을 뿐 아니라 동료 흑인들의 자유도 찾아준, 자유와 평등을 몸소 실천한 여성이 해리엇 터브먼(Harriet Tubman, 1820-1913)이다. 그녀는 미국 메릴랜드주의 한 농장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부모는 노예 2세대였으며 그녀의 조부모는 아프리카에서 ‘사냥’ 당해 강제로 미국으로 끌려왔다. 터브먼도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강탈당한 채 노예의 삶을 시작했다. 가족이 팔려나가고 상습적인 구타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던 그녀는 무엇보다도 그녀의 자식들도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괴로워하며 몇 차례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한다. 링컨 대통령 때에 북쪽에서 흑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지역이 늘어나고 북부의 백인 일부와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흑인들이 남부의 흑인 노예들을 북쪽으로 탈출시키는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북부에서 내려온 인도자가 남부의 흑인들을 안내하여 북부로 탈출시키는 일을 하던 ‘지하철로’ 인도자의 도움으로 북부로 탈출에 성공했다. 탈출 후 그녀는 북부지역에 살면서

여름과 겨울에 잡역부와 청소부로 일해 번 돈을 봄과 가을이 되면 자기
 가 탈출해온 남부 노예지역으로 내려가서 다른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
 출시키는데 썼다. 1850년부터 1860년까지 19차례 지하철로의 차장으로
 활동하며 흑인들이 노동하는 남부 농장으로 숨어 들어가 300명이 넘는
 흑인들을 탈출시키면서도 단 한 명의 낙오자와 부상자도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탈출 여정에서 엄격한 지휘자였으나, 흑여 마음이 약해져 포기하
 려는 탈출자를 격려하고 때로는 꾸짖으며 가족 외에도 수많은 노예에게
 자유를 찾아주었다. 그들을 돕는 사람이 터브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
 고, 도망 노예송환법이 미국에서 제정되었을 때에 그녀는 도망친 노예들
 을 캐나다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에게 직업을 찾아주기도 하였다.
 자신만의 자유로 만족하지 않았던 그녀는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군에 종군하여 요리사이자 간호사로, 무장 경찰병이자 스파이로 활
 약하였다. 또 전쟁에서 탐험대를 이끈 첫 여성이 되어 700명이 넘는 노
 예들을 구출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워 북부의 군인들에게 ‘터브먼 장군’으
 로 불리기도 하였다. 자유를 찾은 흑인들을 돌보고, 동맹군 영역을 정찰
 하며 버지니아 주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간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
 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일정
 한 급여를 받지도 못했고 몇 년간 연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법적으
 로 보장된 흑인의 자유와 평등이 사회적으로는 실현되지 못했다. 은퇴 후
 에도 터브먼은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싸웠지만 여전히 미국에 사는 한
 명의 흑인여성으로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평생 모은 돈으로
 1908년 해방된 흑인들의 안정된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해리엇
 터브먼의 집’을 완성하여 평등과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러 세대의 흑인들
 에게 영감을 주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배움은 짧았지만 여성으로 흑인
 해방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한 터브먼은 자유와 평등을 몸
 소 실천한 흑인 해방 운동가였다(김정미, 2011, 63). 그녀의 삶이 오늘날
 미국의 자유와 평등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미국

재무부는 여성참정권 보장 100주년이 되는 2020년을 기념하여 2016년 4월, 20달러 지폐 앞면에 미국의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대신 터브먼을 넣기로 하였다. 흑인이 미국 화폐 인물로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여성이 지폐 인물로 등장한 일은 1891년부터 1896년까지 통용된 1달러짜리 은 태환 증권(silver certificate) 이후 처음이다(KBS News, 2016년 4월 21일).

2. 도덕적 의미에 대한 공감적 감성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그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므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으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인생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기술은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나 모른다면 AI는 나를 대신해 나의 목표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통제할 것이다(Harari, 2018, 400). 사람의 자유의지가 기계와 데이터에 의해 통제되어지고 인간이 기계처럼 기계가 인간처럼 되며, 인공지능이 생물학적인 진화를 추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올 때(Kurzweil, 2005, 7) 사람들은 너무 많은 정보로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복잡해질 때 거짓 정보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보의 불균형은 곧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므로 자아의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AI시대에 필요한 생존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최고의 도덕적 정언명령은 아는 것도 의무이다. 근대 역사에서 최대 범죄는 증오나 탐욕이 아니라 무지와 무관심이었으며(Harari, 2018, 338) 도덕적 의미는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것'이며 영적 민감성을 포함하는 것이다(김난예, 2012, 356). 어떤 행동이 어떻게 남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멀리하는 것이 공감이다. 사람을 죽이고 강간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런

행동이 초래하는 불행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며 공감적 감성이 상실된 상태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심지어 자신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는 아랑곳없이 당장의 정욕이나 탐욕을 채우는 데만 집착한다(Harari, 2018, 301). 공감이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감의 감성적인 면 외에도 진실성과 소통성과 자연친화적 특성을 갖추어야 진정한 공감이 될 것이다(김난예, 2013, 105).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파괴, 환경오염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민족 단위의 정치에 고착되어 있거나 종교 등으로 분리되어 역행하고 있는 것은 지구적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며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다. 지구적 고통과 아픔에 도덕적이고 적극적인 공감적 감성으로 대처한다면 직면한 인류의 아픔을 줄일 수 있으며(Harari, 2018, 236) 이것은 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서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공감이야말로 AI시대에 중요한 능력이다.

공감적 감성으로 전 지구적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여 고통을 줄이는 일에 젊음을 바쳐 세계인의 연대를 이끌어낸 여성들이 있다.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모리스 구달(1934~)은 1956년 케냐에서 농장을 운영하던 친구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물 때 고고학자로 활동하던 루이스 리키라는 스승을 만난다. 리키는 동물에 대한 구달의 흥미와 재능을 알아보고 그녀를 조수이자 제자로 받아들였고, 선사시대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할 침팬지 연구를 구달에게 제안하였다. 196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침팬지의 감정, 행동 방식 등 폭넓은 연구 주제로 진행되었고, 침팬지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과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사실로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구달은 '제인 구달 연구소'를 설립하여 침팬지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비윤리적으로 실험되고 동물원에 갇힌 채 죽어가는 야생 동물들의 동물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 레이첼 루이스 카슨(1907-1964)은 20세기를 대표하는 환경운동가

이다. 카슨(Carson, 1962, 296)은 이 세상이 인간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과 공유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생각과 책으로 세상을 바꾼 그녀의 활동은 환경운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여, TIME지에서는 20세기를 변화시킨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카슨은 1907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작가를 꿈꾸고 대학에서 문학을 배우던 중 생태계에 흥미를 가져 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해양 동물학 석사 학위를 마친다. 그녀는 문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독자적인 스타일의 저서로 널리 인정받으며, 사회적 이슈를 몰고 온 「침묵의 봄」은 살충제가 자연 생태계를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당시 농업에서 널리 사용되던 DDT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로 대중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관련 업체는 카슨을 음해했으나 4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증된 카슨의 주장은 결국 미국 정부를 움직여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을 만들었고, 「침묵의 봄」은 환경운동을 대중에게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나무를 사랑한 왕가리 무타 마타이(1940~2011)는 그린벨트 캠페인을 펼친 케냐의 여성이다. 그린벨트 운동은 아프리카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는 운동으로 1977년 시작되어 지구온난화로 점점 사막으로 변해가는 땅을 지키기 위한 다국적 연대를 이끌어 낸다. 마타이는 1940년 케냐의 리테 마을에서 태어났다. 당시는 케냐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던 시기였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앞둔 시기여서 마타이는 국가에서 선발되어 미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녀는 생물학을 전공한 후 피츠버그 대학에서 수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1970년대부터는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막화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운동으로 일생동안 약 4,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나무 여성'이라 불리며, 사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마타이는 환경운동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케냐 국립여성협회의 의장으로 아프리카 여성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부패한 정권에 대항하

여 케냐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기도 했다. 마타리의 환경운동과 인권운동은 주변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아프리카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2019. 9. 7, 실천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 환경 운동가들, from <https://blog.naver.com/wingbox7/221642056702>)

3. 섬김과 헌신 및 배려의 공감적 감성

남성중심 사회가 여성을 남성과 다른 기준으로 길들여 놓고 남성중심의 도덕기준을 보편적 인간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여성이 도덕발달에서 열등하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여성들이 도덕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여성적 ‘선(착함-goodness)’이 강요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감수성과 배려가 발달되었기에 여성의 도덕성은 정의(正義)의 도덕관에서 말하는 평등과 권리와 규칙의 문제와는 다른, 관계와 책임의 문제로 구성되는 배려(配慮)의 도덕관이다. 감정, 애착, 배려, 보살핌 등이 인간의 특성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성만의 본성에 귀속시키고 이러한 특성에 대한 남성의 능력을 간과하고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는데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주었다고 길리건은 말한다(김숙자, 2005, 21). 2020년 3월 RISS에서 키워드 ‘봉사’로 검색하면 여성은 1,574건이지만 남성은 648건이고, ‘섬김’은 여성 37건 남성 15건이며, ‘배려’는 여성이 1,434건 남성 678건으로 검색된다. 봉사, 섬김, 배려 등은 남성보다 여성이 두 배가 넘어 여성의 특성으로 자리 잡은 것도 이런 이유이다.

예수님은 섬기는 봉사자로서 여성을 크게 차별하는 시대에 인종, 성차, 출생지 등이 아닌 귀중한 한 인간으로 여성들을 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감적 감성으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느끼고 채워주었고(막 5:24-34, 눅 10:38-42, 요 8:2-11, 요 4:1-42, 막 14:3-9) 여성들을 사역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눅 8:1-3). 예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

며 하나님나라를 선포하실 때 열두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등 다른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 여성들은 자기네 재산을 바쳐 예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고 도왔다. 이외에도 많은 여성들이 물질적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원했으며,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심지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수많은 비난, 질책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다. 한국교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무궁한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깝다.

IV. 여성 공감적 감성 능력함양을 위한 기독교교육 과제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으로서 여성이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공감적 감성으로 AI를 옷 입어 역량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 억압과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가 계속되고 어두움의 그림자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적 감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들이 기회의 문 앞에서 주저하지 않도록 기독교 여성들을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가? AI시대에서는 남성적 특성으로 여겼던 권력, 힘, 지배보다는 봉사, 섬김, 배려 등으로 형성된 감각적 여성적 특성이 인간의 삶 속 깊숙이 친근감을 가지고 들어온다. 현대 인류의 기원인 '호모 사피엔스'는 오랜 기간을 거쳐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다. 남성의 절대적 힘을 필요로 하던 시대에서 전기의 힘을 거쳐 정보가 힘이 되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공지능이 삶 속으로 들어와 소소한 것에서부터 운명을 바꾸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육체적 근력보다 혁신적 창의력이 큰 가치를 창출하고,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의 AI시대에 기독교여성들의 공감적 감성함양을 과제를 살펴보자.

1. 여성의 성서적 관점과 자아정체성 정립

가부장적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성의 사회적 역량과 지도력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거나 거부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지 사회 정치 세계 안에서의 현상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여성들은 잠잠히 침묵하면서 복종하고 봉사하도록 강요받으며 성서 및 구절들로부터 교회 여성의 지도력을 거부하는 근거를 대고 있으나(고전 14:34-35, 딤후전 2:11-12 등) 성서본문들은 여성의 지도자적 위치와 사회적지도력을 거부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섬김과 봉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과 이웃의 정신적 물질적 궁핍을 보충해주는 윤리적 책임의 수행을 의미하며(정태현, 1998, 3560) 결코 남성과 여성의 특성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성서가 남성 저자들에 의해 가부장적 사회 전통에서 씌여졌으나 구약성서에서 미리암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 사회적 지도자로, 드보라는 사사와 선지자로 백성을 재판하고 전쟁에 참여하고(삿 4:9) 냉담한 지파들을 책망하는 통치자였고(삿 5:16, 17, 23), 홀다(왕하 22:14)와 노야다(느 6:14)도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던 여선지자였다. 또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을 도우며 끝까지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았고(막 15:40-41)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부활한 주를 처음으로 만나 이를 선포하고 증언하였다(막 16:1-11). 바울은 남자와 여자에게 차별 없이 임한(갈 3:28) 구원소식을 전한 후, 여성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다(롬 16:3). 바울 당시 여성들이 남자 제자들과 똑같이 성령을 받고(행 2:17-18) 복음을 증거했으며(빌 4:2), 자기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장로(딤후전 5:1)와 집사(롬 16:1, 고전 3:5, 9)로 봉사하였다. 즉 성서의 가부장적 텍스트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수사적 담론으로서 가부장적인 관심과 맥락에 기

반하는 상호주관적 실천적 상징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진미리, 2016, 160). 따라서 AI시대에 여성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날마다 변하는 AI 시대 속에서 성서적 정체성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계문명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현상은 기계들이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면서 더욱 심해질 것이며, 미래 여성과 우리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절박하게 자기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I 시대 복음의 빛 아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말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관찰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며(Harari, 2018, 466) 고통은 외부 세계의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을 일으키는 정신적 반응이다. 예수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성경말씀을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였듯이 기독교 여성들은 AI시대에 정기적으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성서적 그리고 사회적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재확인해야 한다.

생명공학에서 인공지능까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상상을 초월하는 혁신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있다. 과거에는 공상과학의 전유물이었던 수명과 건강, 인지, 능력의 한계점이 기술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생명연장과 유전자 맞춤형 아기와 더불어 유전적 질병을 제한하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증강시키는 등 인류를 수정하는 기술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성서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독교 여성들은 생명 연장과 맞춤형 아기, 아기를 출산하는 일을 기계에게 맡길 수 있는지, 인간과 기계 사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신에게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chwab, 2017, 157-158; 2019, 44). 또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생명존중을 생각했을 때 유전자 코드를 조작할 권리가 있는지, 그렇다면 기독교 여성이 가져야 할 책임감은 무엇

인지 등 새로운 질문들이 우리 앞에 있다(Schwab, 2017, 48). 이에 대한 대답은 여성의 성서적 사회적 정체성 확립이다. 교회를 비롯한 사회적 삶과 AI시대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이룩해 나가는 변화들에 초점을 맞추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여성들(Women as Church on the Moving)”이 되어야 한다(진미리, 2016, 137).

2. 내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

인류의 역사는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온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이 그 답이다. 고도의 기술사회가 될수록 인간은 기계와 대화를 하고 소통하며 더 외롭게 소외된 채 혼자임을 느끼고 적절히 그것을 즐기며 살아간다. 얼굴을 대면하고 말하기보다는 기계를 사이에 두거나 기계를 통해 말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각종 이모티콘을 이용하여 마음을 전달하는 등 실제적인 하이터치(High touch)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반면에 계속 좁아지는 지구촌 안에서 세계 사람들은 각종 블로그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공감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들의 공감은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정재영, 2010, 31). 여성들은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진정한 자신이 되지 않으면 AI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줄 것이다.

기독교 여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리며 가부장적 가치에 오염된 억압적인 자기희생적 헌신과 배려로서가 아니라, 자기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진정한 여성으로 자신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여성들이 진정한 자아실현과 가치 있는 의미의 세계를 만들어 내려면 현재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재해석해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가부장적 경험과 해석틀, 오염된 가치로부터 탈피하여 성서적 여성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여성들의 삶과 위기의 경험들을 새롭게 복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존재와 삶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알고리즘, 아마존, 정부보다 더 빨리 달려 더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Harari, 2018, 402). 닐 도널드 월쉬(2014)는 「의식의 변화를 꿈꾸는 미래 인간 선언문」에서 4가지 질문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왜 내가 이곳에 있는가', '이 사실에 관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그런 의식적 선택이 미래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이르며 그 길을 가려고 시도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게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에서 진정한 변화란 나 자신이 되기 위해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찾아오며 자기 관찰을 통해 자신을 알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여성들의 공감적 감성을 함양해야 한다.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되고 인간의 한계선이 모호해지는 AI시대에 인종, 성별, 배경 및 신념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공동선의 중요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는 기독교 여성들의 청지기적 사명으로서 자신만이 아니라 후세를 위한 노력이다(Schwab, 2019, 63).

3. 시대적 통찰능력 함양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있으나 희망 지향적이므로 AI시대 여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주어진 문제만을 해결하는 테크니션에서 벗어나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발굴하고 정보를 이해하고, 식별하고, 종합하는 능력과(Harari, 2018, 392) 시대적 통찰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즉 AI시대 시대적 통찰이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사건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의사

소통, 타인과의 협력은 물론 창의성을 길러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며, 낯선 상황에서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시대적 통찰력이 없다면 기술이 나를 대신해 나의 목표를 결정하고 나의 삶을 통제할 것이므로(Harari, 2018, 400) 평생 교육으로 자신을 자각하고 전인적 균형을 유지하는 공감적 감성을 함양해야 한다. 목표 앞에서 주저앉는 자포자기 우울증, 상대의 결점을 참지 못하는 완벽주의, 희생양 콤플렉스, 남을 믿지 못하는 강박적 자기의존증, 기쁠 때 찾아오는 기분저하증, 실패에 대한 심리적 방어, 만성불만증을 낳는 비교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며(Ashner & Meyerson, 2006)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산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시대적 통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입증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기꺼이 자신의 이익을 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봉사자의 삶을 항구히 실천하셨던 것처럼, AI시대 기독교 여성은 하느님나라 구현을 위하여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 가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여성들은 인간 존엄성과 자유 및 평등에 대한 공감적 감성, 도덕적 의미에 대한 공감적 감성, 섬김과 헌신 및 배려의 공감적 감성으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한다. 말씀이 삶을 주장하는 기독교적 공감감성을 가진 여성들은 AI시대에서도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과 도덕적 품행을 살아내는데 민감하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여성들은 거룩한 분노와 비판적 성찰과 대안을 가지고 예수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서 그 길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말없이 거룩한 헌신과 배려와 열정과 사랑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었다.

이제는 새롭게 전개되는 여성의 시대다. 기독교 여성들은 배려와 헌신의 도덕적인 동기에서 일을 시작하고 끊임없는 실천으로 모범을 보이며

직관적 경험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거대한 자력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기독교 여성교육의 과제는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사건들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대적 통찰능력을 가지고 언제나 자신의 정체성을 꿰뚫어보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향기를 추적하고 음미하고 성스럽게 어루만지는 공감적 감성을 지녀야 한다. 기계화되어가는 시대적 운명의 현실과 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희망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위에 이루어가는 굳은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AI시대에 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공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 희망이며 희망은 바로 행동을 가능케 하는 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관계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며, 자신과 주변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들을 필요와 경험을 통해서 청지기적 봉사자로서 해결해 간다.

우리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하면서도 이미 다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를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세상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의미를 주는 것이므로 내 자신이 매일의 창조자가 되어 성서적 신앙적 삶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를 체감하기 이전에 이미 신앙적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변해가는 AI시대에 진정한 자신을 찾고 의미를 만드는 것이 자아실현이다. 나의 느낌과 생각과 희망과 발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자아실현이기에 지금까지의 여성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감적 감성으로 진정한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정확한 필요와

욕구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의 기독 여성들을 어제의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은 여성들의 미래를 훔치는 것이다. 여성들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는 여성들이 AI시대에 적절한 역할 행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실현을 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난예 (2012). 여성지능 가능성 탐색.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0, 335-360.
- 김난예 (2013). 공감과 공감결핍 치유를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3, 91-119.
- 김난예 (2016). **미래시대 미래세대 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김대식 (2007). **감성제품개발론**. 서울: 형설출판사.
- 김성화·권수진 (2019). **미래가 온다, 나노봇**. 서울: 와이즈만BOOKS.
- 김숙자 (2005). 길리건의 '배려' 관점에서 본 모녀의 '자기희생' 경험과 소통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 김정미 (2011). **세계사 여자를 만나다-역사를 움직인 33인의 여성 리더**. 서울: 아름다운 사람들.
- 김희경 (2013). 미조구치 겐지(溝口健二) 영화의 여성상 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전남.
- 박정연 (2012). 침묵의 봄의 배경과 과학커뮤니케이션. 부산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 서홍석 (2005). 여성적 감성을 반영한 제품디자인에 관한 연구. **감성과학**, 8(3), 231-240.
- 손여림 (2012). 여성의 감성을 고려한 여성병원 병동부 실내 환경 특성평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손호중 (2007). 감성자본의 관리가 구성원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달청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177-202.
- 신정환 (2011). 서비스 디자인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여성적 감성요소에 의거한 디자인 평가에 관한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대희 (2005). 감성정부와 이성정부의 비교론적 고찰.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 1-34.
- 이선용 (2013). 한국 초기 개신교와 여성교육: 김활란과 김마리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란 (2014). 이미지의 색채 속성을 이용한 감성정량화 기술연구.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서울.
- 이지선 (2008). 감성시대의 도시이미지를 활용한 패턴디자인. 미출판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재영 (2010). 공감의 개념트가 미래를 바꾼다. **LG Business Insight**, 6, 28-42.
- 정태현 (1998). **봉사,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진미리 (2016). 페미니스트 비판과 해석학적 지평의 전환-엘리자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를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45, 125-169.
- 최상복 (2014). **산업안전대사전**. 서울: 도서출판 골드.
- 최윤식 (2016). **미래학자의 인공지능 시나리오**. 서울: 코리아닷컴.
- 최은수 (2018).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서울: 비즈니스북스.

- 최재봉 (2019).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서울: 쌤앤파커스.
- Aburdene, P. & Naisbitt, J. (1992). *Megatrends for women*. New York: Avon. 여성 메가트렌드, 한국경제신문사(한경비피).
- Ashner, L. & Meyerson, M. (2006). **사람들은 왜 만족을 모르는가**. 조경희 역, 서울: 에코의 서재.
- Carson, R. L. (1962). *Silent spring*. Houghton: Mifflin Company.
- Donald, W. N. (2014). **의식의 변화를 꿈꾸는 미래 인간 선언문**. 이선미 역, 서울: 판미동. (원저 2020 출판)
- Harari, Y. N. (2018).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전병근 역. 서울: 김영사. (원저 2019 출판)
- Hesse, H. (2014). **데미안**. 김인순 역. 서울: 열린책들. (원저 1923 출판)
- Kurzweil, R. (2007). **특이점이 온다**. 장시형, 김명남 역. 서울 :김영사. (원저 2006 출판)
- Rifkin, J.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서울: 민음사. (원저 2009 출판)
- Schumacher, F. E. (1987). **작은 것이 아름답다**. 김진욱 역. 서울: 범우사. (원저 2010 출판)
- Schwab, K. 외 26인 (2018). **4차 산업 혁명의 충격: 과학기술이 몰고올 기회와 위협**. 김진희, 손용수, 최시영 역. 서울: 흐름출판. (원저 2018 출판)
- Schwab, K. (2017).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송경진 역. 서울: 새로운현재. (원저 2017 출판)
- Schwab, K. (2019). **더 넥스트**. 김민주, 이엽 역. 서울: 새로운 현재. (원저 2018 출판)
- Wingbox (2019. 9. 7). "실천으로 세상을 바꾼 여성 환경 운동가들"
<https://blog.naver.com/wingbox7/221642056702> 에서 인출.
- 언저리타임 (2018.11.13.). "'여성은 공감적 남성은 분석적'...실험해보니 남녀는 역시 달랐다". <http://www.injurytime.kr> 에서 인출.

Abstract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for Developing
Empathic Sensibility Ability of Women in Artificial
Intelligence Era**

Nanye Kim

Associate Professor,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for developing empathic emotional ability of women in AI era through examining the meaning of empathic sensibilization and the examples of women overcoming the hardships of their times and bringing about change.

Empathic sensibility is becoming a issue and empathy is emphasized in AI era. Because empathy is becoming a big support in overcoming hardships, and empathic emotion is showing human dignity, equality, service, devotion and consideration and so is forming a global community living together. And on investigation of the examples of women overcoming the hardships of their times, I found that as a woman with a sense and thought, as a historical human being, not as a gender,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for developing empathic sensibility ability of women in AI era will be effort to be yourself, theological identity reestablishment of women and developing insight to read the times.

〈 Key Works 〉

Artificial intelligence, Female, Developing empathic sensibilization,

Theological identity, Insight to read the times.

- 투고접수일 : 2020년 05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20년 06월 0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06월 25일